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8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바란다 / 신인식(종달새전화도서관장)

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행안부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장관표창 수상
2.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모습 처음으로 공개돼
3. 인권위,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요구는 차별
4. '편의시설 개선추진단' 출범한다
5. 스탠다드차타드, k리그 선수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후원행사 열어
6. 인천해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안녕, 하세요' 개봉

사람이야기: 세계적인 시각중복장애재활센터 건립을 꿈꾸는, '여주 라파엘의 집' 정지훈 원장

독자마당: 스쳐가는 인연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 서진희(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일~5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6)

~~~~~

포커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바란다

신인식(종달새전화도서관장)

흔히 도서관을 ‘지식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이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과거처럼 특정 계층 사람들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찾아야 하는 필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으며, 정부는 2013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을 9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우리의 독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각종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시각장애인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도서관들이다. 국립 공공 도서관은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건축비를 비롯하여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지만, 시각장애인 도서관들과 같은 사립 도서관에는 선심성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뿐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쥐꼬리만 한 예산 지원을 끊을 경우에도 관계 당국을 상대로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적은 예산과 후원금 등을 확보하여 최선을 다해 공공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 도서관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복지관과 같은 기관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 환경이 좋지 않다.

시각장애인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인데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공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우리들의 힘으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열악한 도서관 환경을 걱정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다행히 2011년도 말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이나 9월경에는 국립 장애인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으니,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은 이 땅에서 시각장애인이 현대적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100여 년이 넘게 요구하여 이뤄낸 것으로,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

공식 명칭이 ‘국립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아니라 ‘국립 장애인도서관’이어서 좀 아쉽지만, 업무의 70% 이상은 시각장애인 서비스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시각장애인이므로, 명칭이 포괄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대상은 시각장애인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이 시각장애인인 것은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공공 도서관들이 시각장애인 사업 위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에 기여하기 보다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공헌했다’는 치욕적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서관 관계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개관에 앞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산 준비에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첫째로 국가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도서관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의 협력을 얻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저비용 고효율의 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 맡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국립 장애인 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 사업을 직접 하여서는 안 된다. 대체자료 제작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단가만 높이게 될 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고 인력 부족으로 도서관 고유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체자료의 제작 업무는 전국에 있는 기존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을 활성화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단 시각장애인 응시생에게 제공해야 할 시험지를 점역하는 것과 같은, 대체자료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처럼 도서관의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전국에서 어렵게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나 이용자들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사업은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 기반 시설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임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공공 도서관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

## 장애인계 뉴스

### 1. 한시련, 행안부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장관표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의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5월 16일 장관표창을 받았다.

행안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등 총 6개 유형의 사업을 공모했다. 이중 최종 220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각 단체는 2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평균 4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한시련은 '중도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으로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부와 지회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와 보행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61명의 중도시각장애인이 1,512회의 점자, 보행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중도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5월 16일 시상식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한시련은 2012년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선정 사이트 웹접근성 컨설팅 사업'이 선정되어 올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2.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모습 처음으로 공개돼

5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로 임명된 최영 판사의 재판과정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중법정에서 최영 판사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이 10여 분간 공개됐다. 재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 최 판사는 이어폰을 낀 채 재판 내용을 들으며 앞에 놓인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중간 중간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최 판사는 지난 2월 27일 북부지법으로 발령받은 뒤, 11민사부가 맡은 35건의 사건 중 22건의 재판에 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5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선고와 2건의 사건을 심리했으며, 정성태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최 판사는 한쪽 귀로는 판결문을 듣고 다른 한 쪽 귀로는 사건이 정리된 기록을 이어폰을 통해 확인했다.

이날 재판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다들 최 판사가 한 쪽 귀에 이어폰을 낀 것 말고는 다른 비장애인 판사들과 달라 보이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판사가 임명되고 두 달간 최 판사 자신은 물론 법원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법원 건물 안팎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으며, 최 판사를 위해 방음시설과 보조공학기들이 갖춰진 업무지원실을 만들어 음성파일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합의재판부 배석판사가 보통 2명이 함께 사무실을 쓰는 것과 달리, 법원은 최 판사를 위해 따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최 판사를 돕기 위해 채용한 최선희(30) 실무관과 함께 방을 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창열 북부지법 공보판사는 “음성 기록 파일을 두 번 정도 들으면 사건 내용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기억력이 좋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재판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판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엔 여성 법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법원도, 저 자신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밝혔다.

### 3. 인권위,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자격 취득요건 중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마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하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졸업자인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꼭 학력제한이라는 방식이 아니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각장애관련 일부 단체와 시각장애 특수학교 관계자들은 안마사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학력제한이 필요하며 오히려 고등과정 이상으로 학력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인권위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 4. ‘편의시설 개선추진단’ 출범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5월 2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공동으로 ‘편의시설 개선추진단’ 출범식을 갖는다.

편의시설 개선추진단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모범음식점

781개소와 아름다운화장실 278개소 등 총 1,059개소의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할 시설은 접근로, 주차장, 출입문, 승강기, 화장실 등이다.

편의시설 개선추진단은 기획팀, 점검지원팀, 현장점검팀, 사후관리팀으로 구성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조사요원 150명이 올해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설보완을 요청하고, 이후 요청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는 업소와 올바르게 시정한 업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범업소로 외부에 홍보할 계획이다.

5월 29일에 개최되는 편의시설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조사요원 15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선추진단 업무보고와 단원 임명장 수여 등이 진행된다.

## 5. 스탠다드차타드, K리그 선수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후원행사 열어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이하 스탠다드차타드)는 오는 5월 28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K리그와 함께 'SiB(Seeing is Believing)기금마련 축구자선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K리그 홍보대사인 안정환을 비롯해 이동국, 설기현 등 K리그 스타 플레이어의 애장품 경매와 유명 브랜드의 의류, 액세서리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선 바자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축구와 시각장애보행, 점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각장애 체험존도 마련된다. 더불어 한빛예술단, 시각장애인 가수 김수환 씨의 공연 등도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스탠다드차타드 SiB기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은 “전 세계적으로 5초마다 한 사람이 시력을 잃고 있고, 2억8,500만 명이 넘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그 중 80% 이상은 충분히 예방 혹은 치료를 통해 실명 퇴치가 가능하다”며, “스탠다드차타드와 K리그가 함께 준비한 이번 SiB축기자선행사를 통해 한국의 축구팬 및 시민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6. 인천해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안녕, 하세요' 개봉

인천해광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영화 '안녕, 하세요'가 지난 5월 24일 전국 19개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영화를 만든 임태형 감독은 해광학교 학생들이 동고동락하며 노래 부르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공부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아냈다.

영화의 제목인 '안녕, 하세요'는 이 학교 학생 중 한명이 평상시 인사를 할 때 '안녕'과 '하세요' 사이에 뜬을 들여 말하는 습관에서 따온 것이다.

지난 2005년 영화 '안녕, 형아' 이후 7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임 감독은 해광학교 이상봉

교사의 개인 사진전을 보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2009년부터 시각장애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사진전을 열어오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인천혜광학교는 1956년 개교한 시각장애특수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의 일반 교육과정과 중도실명 성인을 위한 재활반, 전공과까지 아우르는 학생 중심의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화는 음성해설과 한글자막을 넣은 '배리어 프리' 버전이 동시에 개봉되어 시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 신애라 씨가 재능기부활동으로 음성해설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개봉에 앞서 지난 5월 14일 열린 언론배급 시사회에 영화에 출연한 혜광학교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출연하는 영화가 아닌 내 주변의 친구를 바라보듯 영화를 보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에 혜광학교 직원들을 초청해 영화를 함께 관람한다.

~~~~~

사람이야기

세계적인 시각중복장애재활센터 건립을 꿈꾸는, '여주 라파엘의 집' 정지훈 원장

경기도 여주에는 시각중복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라파엘의 집을 20년 넘게 지켜온 정지훈 원장이 있다. 그는 1986년 작은 가정집을 임대한 비인가 시설이던 라파엘의 집을, 현재의 생활시설·치료센터·직업재활센터·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춘 시각중복장애인재활센터로 자리매김 시켰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전화위복이라 하던가 좋은 일이 있기 전 정 원장은 올해 초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다.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기에 몸 관리를 하고 있다. 위험한 고비를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라파엘의 집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그곳에서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꿈과 라파엘의 집을 운영하며 겪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자.

-우선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축하드린다.

“상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해왔다면 상을 받지 못 했을 거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도 든다.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힘들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다. 과거에 시각중복장애분야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이방인처럼 보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받은 것 같다. 그런 점을 국가가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파엘의 집은 시각중복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나.

“현재 160명의 이용자가 라파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모두 시각장애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있다. 시각이 1차 장애이고 2차 장애, 3차 장애를 함께 갖고 있다. 지적장애가 가장 많다. 침대에 누워만 지내는 와상장애인도 많다. 모두가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들으신다. 헬렌 켈러 위인전에서 읽은 것처럼 시각중복장애인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직접 교육에 참여하지는 않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시청각장애는 시각중복장애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이 많다. 가장 악조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미국은 헬렌 켈러가 있기 50년 전에 파킨스맹학교에서 시청각장애아를 교육한 기록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청각시각장애인협회가 만들어졌고 사토시 후쿠시마라는 분이 시청각장애에 대한 관심의 불을 지폈다. 한국의 설리반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 나는 한국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 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처음 라파엘의 집에 무보수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맹학교에서 교사 임용제의를 받

고도 라파엘의 집에 남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었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일했다. 용돈정도를 받았다. 맹학교에서 임용제의를 받았지만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부모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장애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지금 같으면 갔을 거다.(웃음) 그때는 모질지 못했던 것 같다. 내 몸,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못할 때가 있더라.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라파엘의 집이 전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굳이 한 명을 말하라면...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이인데 고무관을 위로 연결해 음식을 먹어야하는 병을 앓고 있다. 고무관을 넣기 위해 배에 구멍을 뚫으면 염증이 생겨 다른 구멍을 또 뚫곤 했다.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입으로 밥을 먹는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 아이가 참 예쁘지만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다 보니 앞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한다.”

-1991년부터 20년이 넘게 라파엘의 집 원장을 맡아오고 계신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시각중복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도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게 틀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오기로 일을 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라파엘의 집이 양적팽창을 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질적인 면에서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따라오질 못하다보니 진행속도가 느린 편이다.”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한다. 욕심과 열정, 이 둘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심과 공적인 일에 대한 욕심은 다르다. 내가 말한 것은 후자이다. 지금도 라파엘의 집을 세계적인 시설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고 이익섭 교수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익섭 교수님은 라파엘의 집이 더 퍼스트(the first, 최초)는 맞는데 더 베스트(the best, 최고)는 아니다, 더 베스트로 만들어보자, 베스트가 되도록 내가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한국시각중복장애연구 모임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다. 이 교수님은 나의 멘토였고 모델이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힘들었다. 올 초에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그 양반을 따라가나 했는데, 아직 안 데려가셨다. 더 베스트의 꿈을 이루고 오라는 뜻인 것 같다.”

-박사학위 논문이 ‘시각중복장애 학생 어머니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어떤 내용인가.

“시각중복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건강이 본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 부모, 특히 엄마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다.

독일에 갔을 때 느낀 게 독일의 시각중복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편안하고 밝다는 거였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부모 중에 아픈 사람이 많다. 원인이 정말 장애인자식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 때문인지 궁금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논문에 담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의 교육과 상담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시각중복장애인들은 사실 어떤 재활훈련을 한다해도 가시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이 한목소리를 크게 내야 이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십수 년간 부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1993년부터 부모모임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라파엘의 집’하면 ‘라파엘밴드’를 빼놓을 수 없다. 작년에 연주하는 걸 실제로 보았다. 밴드를 결성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일본 라이트하우스에서 시각중복장애인밴드를 보고 2002년도에 시작하게 됐다. 지금은 단원이 7~8명 된다. 재능이 있는 애들을 발탁해서 연습을 시킨다. 주입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친다. 나는 아이디어만 제공한 거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라파엘의 집을 세계적인 시각중복장애센터로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독일의 경우 한 시설에 시각중복장애인 170명쯤 있는데 직원이 300명이다. 장애인 한 명당 직원이 두명꼴인거다. 시설 안에 연구소도 설치되어 있고 독일 최고의 명문이라는 뮌헨대학을 졸업한 박사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가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부모들의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라파엘의 집이 도시 근교가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학교로 치면 민족사관학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하버드, 예일대와 같은 세계의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한다. 라파엘의 집에 대해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계속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마디.

“시각중복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전국 12개 맹학교에 1,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이중 340명 정도가 시각중복장애인이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맹학교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시각중복장애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

~~~~~

## 독자마당

### 스쳐가는 인연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 서진희(부산광역시 북구)

‘오늘도 사람이 많겠구나.’

회사를 마치고 지하철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최근 들어 부쩍 퇴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몇 달 전만해도 이렇게까지 지하철 안이 비좁진 않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늘어서인지는 몰라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비좁고 들어가야 겨우 탈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낯설다.

“감사합니다”라는 지하철 개찰구의 안내음성이 겹쳐서 들려온다. 지하철에 들어서니 걸어 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빗나가질 않을 모양이다. 벌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줄을 서 있었다.

톡톡

계단에서 누군가의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낯설지 않은 소리라 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쪽에는 흰지팡이로 걸음을 옮기며 내려오는 시각장애인분이 있었다. ‘어디를 가시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에 마음이 쓰였다.

“띠리리 노포, 노포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줄을 섰다.

드르륵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나는 ‘헉’하는 작은 신음 소리를 냈다. 지하철은 이미 만석이였다. 비좁고 들어갈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사람들로 빼곡했다. 나는 타려다 지하철을 타려다 문득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분이 잘 탈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들자 얼른 그 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분은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고맙습니다”라며 내가 인도하는 대로 지하철에 올라탔다. 사람이 너무 많아 손잡이도 못 잡고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사람들 틈에 꼭 끼여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노약자석에 자리가 났다며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얼른 그 시각장애인분을 앉혔다.

“어디까지 가세요?”

나의 질문에 그 분이 대답했다.

“연산동까지 갑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연산동까지 가는데 저랑 같이 내리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때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분이 나와 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얘기가 입에서만 맴돌 뿐 선뜻 나오질 않았다.

나는 그 분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참 대단하다. 지팡이만 갖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구나...’ 나도 맹학교 다닐 때 보행실습으로 지팡이를 잡고 학교 주변을 다닌 적이 있었다. 안

대로 눈을 가리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을 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생각을 하니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가지고 혼자 다니는 일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짠해졌다.

“다음 역은 연산동역입니다.” 지하철 안내멘트가 들려왔다.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산동에 도착했고 우리는 내렸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분은 인사를 하고 점자블럭을 따라 출구로 향했다. 나는 그 분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우연히 스쳐간 만남이 내게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항상 감사하고 또한 나보다 약한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일~5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5월 1일(화요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전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복지TV <희망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 촬영을 했다.

3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본부 전체회의(이날 취약계층소위원장으로 선출)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4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과위원장 총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후, 한시련 지회장단 말레이시아 선진기관 연수회(WBUAP 마사지 세미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으며 5월 7일까지 진행된 지회장단 연수회 일정을 함께 했다.

8일(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과 면담을 나누었으며, 다음 날인 9일(수요일)에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이어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10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경청투어' 모임에 참석했으며, 11일(금요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14일(월요일)에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같은 날 민주통합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5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모임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총회를 주재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6)

### 1) 귀엣말과 꺾속말 중 맞는 말은?

-답: 둘 다 맞음

-해설: 꺾속말과 귀엣말은 모두 맞는 말로 ‘귀엣말로(꺾속말로) 소곤거리다’와 같이 쓰인다.

### 2) 까탈스럽다와 까다롭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까다롭다

-해설: ‘까탈스럽다’는 비표준어이고, ‘까다롭다’가 표준어이다. ‘그 사람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는 ‘그 사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로 고쳐 써야 한다.

### 3) ‘피다/꼬이다/꽤이다’ 중 맞는 말은?,1

-답: 피다, 꼬이다

-해설: ‘꼬이다’와 ‘피다’는 의미가 같은 말로 ‘꼬이다’의 줄임말이 ‘피다’이다. “음식물에 파리가 꼬인다”와 “음식물에 파리가 꺾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꽤이다’는 틀린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를 꺾이다, 물이 꺾이다, 땅이 꺾이다, 애인에게 채이다’에서와 같이 ‘꺾이다, 꺾이다, 꺾이다, 채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다. ‘나사를 조이다/죄다, 물이 고이다/괴다, 땅이 꺾이다/꺾다, 애인에게 차이다/채다’와 같이 써야 옳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